



Market Index / 25일

| | | | | | | | |
|---------------------------|---------------------------|------------------------------|-------|-----------------------------|-------------------------|-----------------------------|-------------------------|
| 코스피지수 ▲ 5642.21 +88.29 | 코스닥지수 ▲ 1159.55 +38.11 | 유가(WTI, 달러) ▲ 92.35 +4.22 | 환율(원) | 1USD 1529.09 100¥ 961.08 | 살때 1476.51 팔때 928.04 | 1EUR 1777.94 1CNY 228.64 | 살때 1708.56 팔때 206.88 |
|---------------------------|---------------------------|------------------------------|-------|-----------------------------|-------------------------|-----------------------------|-------------------------|

제주 인구 31개월 연속 순유출... 감소세 고착화

올해 두달 간 전입보다 전출 많아 1095명 순유출
1월 출생아 수 340명으로 1년 전보다 18.0% 증가
주민등록인구는 2월까지 34개월 연속 줄어들어

제주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은 인구 순유출이 3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또 올해 1월 제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총전입 인구는 7889명, 총전출 인구는 8329명으로 440

명이 순유출됐다. 1월(655명)에 이어 두 달 동안 1000명 넘는 인구가 빠져나갔다. 도내 인구 순유출은 2023년 8월 이후 31개월 계속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인 2023년 1687명 순유출로 돌아선 후 2024년 3361명, 2025년 4273명으로 확대됐다.

또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출생아 수는 34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8.0%(52명) 증가했다. 1월 기준 2023년(344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16.4%(86명) 감소한 438명으로, 자연감소는 98명을 기록했다. 1월 혼인 건수는 257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에 견줘 3.6%(9건) 증가한 수치다. 1월 기준으로는 2020년(282건) 이후 6년 만에 최다. 이혼 건수는 111건으로 10.5%

(13건) 줄었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0년 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혼인 건수도 2년 연속 증가했지만 계속되는 인구 순유출로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2월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6만 3514명으로, 전월 대비 0.1%(481명) 줄었다. 2023년 5월 이후 34개월 연속 감소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았던 2022년 8월(67만 9016명)에 견주면 2.3%(1만5502명) 줄어든 수치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협의체 출범

민간 주도 협력 플랫폼 역할 수행

제주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기업의 공동 성장과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제주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23개 기업들은 최근 센터 회의실에서 '입주기업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 구성은 입주기업의 공동 현안을 정리하고, 대외 협력 창구 역할을 할 대표 조직의 필요성에 입주기업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졌다.

회의에서 협의회장에는 임동현(주)에스지마 대표를 선출했다. 또 상임위원장에 김창윤 퓨처텍스(주) 고문, 이사에 김민교(주)인플라이 대표와 변종기(주)맘꽃 대표, 감사에는(주)퀵터니언 함규식



제주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23개 기업들은 최근 센터 회의실에서 '입주기업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공동의 이익 창출과 정책 연계, 투자·고용 확대를 견인하는 민간 주도의 협력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제주지식산업센터에는 공개모집을 거쳐 지식 기반 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기업을 입주해 있다. 문미숙기자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제주시, 792농가 최종 선정

제주시가 2026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와 FTA 등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소농, 고령농, 청년 창업농 등 발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관련 사업에는 1218농가가 신청했고, 이 가운데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92농가가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경작지 압반 제거 140농가·5억8100만원 ▷소형 농기계 지원 553농가·14억9900만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17농가·1억2300만원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8농가·7400만원 ▷발작물 관수시설 지원 66농가·6900만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8농가·5억9700만원 등 6개 사업에 29억4300만원이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발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친서민 농정시책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치유의숲을 찾은 도민·관광객들이 해먹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라일보 DB

서귀포치유의숲, 우수 웰니스관광지 '10연패'

치유·휴양 메카로... 지속가능 관광지로 인정받아

서귀포치유의숲이 10년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며 국민의 치유·휴양 메카로 인정받았다. 25일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에 따르면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유·휴양 관광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으로 주관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이번 서귀포치유의숲의 10년 연속 선정은 단순한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입장객은 15만1659명으로, 전년 대비 7.5% 늘어 명품숲 자체의

치유적 가치와 다양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휴식과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 참여와 자동차유류 배상 운영을 통해 지역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는 호평도 받았다. 앞서 서귀포치유의숲은 2023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산림휴양형)' 선정, 2020년 '열린 관광지' 지정 등 다양한 국가적 인증을 받으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다움' 담은 프리미엄 콘텐츠로 승부

제주관광공사,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 콘텐츠' 공모 15개 콘텐츠 선정 성장 지원 프로그램 단계적 지원

제주다움을 담아 시장에서 선택받을 프리미엄 콘텐츠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관광의 질적 전환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성장 트랙)' 공모 사업을 4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제1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지역 관광 대도약'과 '고부가 관광 육성' 등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최근 열린 제주관광 전략회의에서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중심 관광' 등이 논의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선정은 제주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실제 운영 중인 법인·단체·로컬 크리에이터

를 대상으로 ▷제주다움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지식재산(IP) 결합형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개 콘텐츠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콘텐츠에는 상품 고도화, 홍보, 시장 연계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 제작, 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 확장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콘텐츠에는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와 세일즈 참가 기회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tourismbiz@ijto.or.kr)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디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디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